

충남도, 내년도 다문화 지원사업 결정

- 2010년 다문화지원사업 신규사업 6건, 그 외 3건 중·단기로



충남도는 9월 10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열린 다문화정책토론회 및 분과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정책위원회를 열고 2010년 다문화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 했다.

이날 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김동완)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정책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업과 중복·유사사업을 통합해 금년도 사업비에 준해서 지원토록 하였고,

신규로 정책 제언한 다문화가족 생활 길잡이 책자 발간 다문화 이해 DVD 제작 다문화공감, 행복충전 5개년 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등 다문화 가족간 공감시간 운영, 다문화정책위원회 운영 등 6개의 단위 사업을 명시화하여 2010년도 지원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이외 정책 제언 사업은 중·단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년도 다문화 지원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조치하고, 중·단기 사업에 대하여는 점차 보완·수정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정책위원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집행부에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지원 정책·예산 등을 종합 조정·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5월 25일 창립총회를 열고, 8월 6일 다문화정책토론회 및 분과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프레2010대백제전, 행사 취소 결정

-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정 중요시
- 총 사업비 108억원 중 13억원 손실 예상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은 프레2010대백제전을 D-30을 앞두고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9월 9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프레2010대백제전과 관련된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등 3개시군의 시장, 군수와 의회의장 및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임원,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단 등이 모여 합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외적으로 나날이 확산되는 신종 플루에 따른 200만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들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해 행사는 부득이 취소하고, 내년도에 개최될 2010대백제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이완구 지사에게 건의하였다.

이완구 지사가 공주시·논산시·부여군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및 범도민지원협의회 의견에 받아들임으로써 올해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추진위는 행사취소에 따라 대규모 축제 대신, 공주, 부여에서 제례행사를 간소하게 거행하여 54년간 이어져온 백제문화제의 전통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동안, 추진위는 총 108억원의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 관련 11억원, 홍보비 3억원, 사무운영 경상비 7억원,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17억 원으로 총 38억원을 집행하였으나, 내년도에 재활용이 가능한 17억원을 제외하고, 손실액 21억원 중에서 사무운영비로 집행된 경상비 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손실액은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석원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국가관리 위기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축제의 취소 내지 중지 지시가 있었고, 특히, 관람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올해 행사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내년도에는 700년 대백제의 융혼한 기상과 찬란한 역사문화를 간직한 백제인의 후예인 200만 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2010대백제전」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당부하였다.

충남도, “2010 대충청 방문의 해” 30개 자체사업 확정

- 관광객 10,700만명(순증 529만명) 방문 예상



충남도는 정부가 공식 지정한 '지역 방문의 해'인「2010 대충청 방문의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30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4일에는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인 '엽서는 정을 싣고' 등 9개 사업을 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충남의 30개 자체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자간 회의는 물론 충남 관광시책자문단의 다양한 자문 등을 통해 당초 76개 사업을 가다듬어 '2010'이라는 상징성을 부여(20+10=30)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30개 사업으로 확정시켰다.

이는 충남·대전·충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9개 사업을 밑바탕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2010 대충청 방문의 해」사업을 더욱 빛내고자 하는 사향으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지원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전과 충북에서 하지 않는 사업 중 특별한 사업으로 KBS N-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되는 등 수백억원의 홍보효과가 있는 ▲“R-16 대회”, 우리나라 전 관광인이 모이는 ▲

“2010한국관광총회”,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태안 환경축제 및 연계사업” 등이 있다.

또한 눈여겨 볼만한 사업으로는 그 옛날 신혼여행 및 수학여행 등의 추억 여행을 떠나는 ▲“충남 옛이야기 투어”, 주요관광지에서의 기념품, 공예품, 농수특산물의 깜짝 경매인 ▲“Auction 경매”, 충남 출신 유명인사(스타)와 일반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명사(스타)와 함께하는 고향 여행” 등이 있다.

도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메가 이벤트인『대백제전』과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양대 사업을 주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업 및 환대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공격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2010년」을 충남관광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으로 기억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도정발전 "아이디어 304건" 쏟아냈다.

-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도 간부 등 합동워크숍(합숙토론)개최



2010년도 도정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도 간부 등은 휴일을 반납하고 아이디어를 생산해 냈다.

충남도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완구 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과 주무담당이상 간부, 道 출연연구기관장 등 110명이 모여 '2010년도 도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道의 주요 간부들이 함께 모여 휴일까지 반납하고 전원 합숙을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정에 대해 상호 공감의 폭을 넓혔다.

또한 충남발전연구원 등 6개 출연연구원장도 함께 참여해 연구기관별로 타 시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도 신규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특히,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과 김상협 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을 초청, "국가브랜드와 도시(지역)브랜드" 및 "녹색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금번 도정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합동워크숍에서는 ▲충남도가 벤치마킹을 통해 습득하고 발

굴한 타 시·도 우수사례 60건 ▲내년도 신규시책 166건 ▲6개 출연연구기관에서 발굴하여 제안한 국내외 우수사례 22건과 내년도 신규시책 56건 등 총 304건의 시책을 발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정책 공유를 통해 친서민 정책 등 주민과 밀접한 과제를 선도적으로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완구 지사는 국정과 도정 운영기조의 균형을 통해 강한 충남의 위상을 더욱 높혀 나가자고 강조하고, "他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발굴한 우수시책은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도정에 접목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민선 4기 4년차 도정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충남도, 관광객 지난해 대비 36.3% 증가

- 지난해 2분기 대비, 충남도 방문한 관람객 561만7,510명 늘어
- 충남관광홍보전용열차 운행, 고속도로 개통 등 영향

충남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동기(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충남도를 방문한 관람객은 2,107만 5,643명으로 지난해 1,545만 8,133명 보다 561만 7,510명이 늘어 36.3%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충남관광홍보전용열차」를 이용한 홍보 등 각종 시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증좌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해안 인근 6개(보령,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시·군은 1,090만 4,500명으로 45.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중 최고 많은 207.5%의 증가를 보인 태안은 최근 성공적으로 추진된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개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 5월에 개통된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전철의 연장운행의 영향으로 예산과 아산은 각각 109.6%와 47.3%가 증가됐고 이는 교통 여건의 변화가 관광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 "2010대백제전",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 등 충남도가 추진하는 주요 관광 시책사업의 대한 성공 예감과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충남,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1위

충남이 경기, 경북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치고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29일 통계청이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년도를 2000년에서 2005년으로 변경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2000~2007년까지 산정한 연평균 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충남 다음으로는 경기(8.3%), 경북(7.2%), 인천(5.6%), 경남 (5.2%)의 순이었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도 3만불을 돌파(30,652\$)하여 울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충남이 개도 이래 처음으로 3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한편 충남도는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 21백만불,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충남은 20년간 장기 표류되었던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의 정상 추진, 도청이진 신도시 건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 국방대학교 논산이전에 따른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호재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협약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 KREI)은 9월 10일 오전 11시에 대전리베라호텔 1층 토치홀에서 양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발연과 농경연 간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경쟁력있는 정책 개발에 공동 협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공통 연구과제 발굴 및 협동연구 수행 ▲양 기관의 특화된 지식 정보의 상호 교류 및 확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세미나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충발연 김용웅 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충남에 대해 보다 전문적·학술적 공동연구가 가능해져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업부문 녹색성장, 녹색기술 활용과 신제품 육성에 관건

CDI-KREI 주최,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 국제심포지엄서 주장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 KREI)은 9월 10일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김동완 행정부지사, 송용호 충남대총장, 관계 공무원 및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열린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국, 일본, 유럽·OECD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동향 및 정책 프로그램 정보 교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전략을 수립하고 농업의 미래 비전 및 농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열렸다.

첫 주제발표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로버트 멘델존 교수는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과 적응'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농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에 불과하다고 밝힌 뒤 "농업은 비료사용 감소, 저경운 농법, 가축사육방법 개선 감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월프리트드 리그 무역·농업국 과장은 '기후변화와 농업: 영향, 적응 그리고 완화'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은 온실가스 감소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합하고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연구위원은 '한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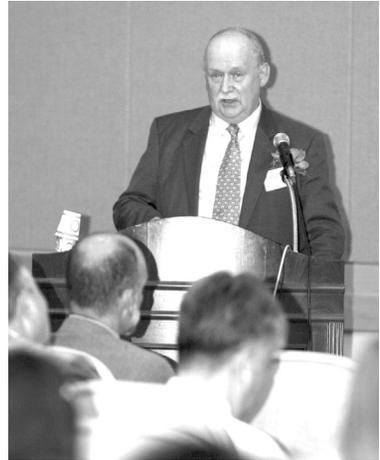
를 통해 "기후가 변화하면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농업기 후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지대 재편, 병해충관리 및 재배 기술 보급, 저탄소 녹색기술의 활용 및 신품종 육성, 위험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키요타다 하야시 농업·식품산업종합연구기구 팀 장은 '일본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 전략'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완화전략을 농업활동의 전 과정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전방과정에서는 토양 및 농기계사용으로부터의 직접 배 출 저감, 후방과정에서는 농기계, 비료 및 농약 생산, 폐기물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의 녹색성장'이란 발표를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신품 종, 대체작목, 저투입 농법 등 온난화 대응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인사말(대독)에서 "기후변화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녹색기술과 녹색에너 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면서 "충남에서도 농업의

생명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채 소의 녹색에너지 확대, 태양열 등의 신 재생에너지 활용, 가축분뇨 자원화와 녹색 축산 등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당진항 발전’ 배후단지에 달렸다

충발연 워크숍서 내항개발 · 연륙교 건설 필요성 제기



당진항이 국제적인 항구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와 물류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증가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진(신평)과 내항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같은 견해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이 9월 8일 오후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한 당진내항지역 개발과 내항진입도로건설 대응방안을 논의키 위한 워크숍에서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는 항만 전문가와 함께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당진항은 15선석의 부두에서 연간 3900만t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 49선석의 부두에서 연간 1억이상의 물동량 처리를 목표로 환황해권 중심 국제 무역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의 첫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연구위원은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중요성과 연결교량 필요성’이란 주제 발표에서 세계물류시장 규모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

물류환경 변화를 예고하며 항만과 내륙 간 물류 네트워크 형성과 물류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배후단지 접근성 강화와 부가가치 공동창출을 위한 내항과 당진 간 연결 교량 건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내항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등 활용 방안'이란 주제의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국내외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례를 들어가며 제조, 물류 등이 복합된 고부가가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물류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복합물류단지와 연계한 당진 내항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충남도,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의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공동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조직구성과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지역투자발전협약 체결 등 협력사업을 구체화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당진군청 이능호 해양정책관 등 토론자들은 당진군의 현안인 내항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함을 강조했고,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무역항으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항과 당진(신평)간 연결도로 건설이 시급히 앞당겨져야 함을 강조하는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출처 - 중도일보 9월 9일자]

충남발전연구, 호주 퀸즈랜드 대학 초청 행사 가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 CDI)은 한밭대와 공동으로 7월 29일 오전10시부터 충발연 대회 의실에서 호주 퀸즈랜드 공대(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와의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QUT에서 '지역발전계획 실습' 교과목을 수강중인 30여명의 학생들을 한밭대가 초청,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대전·충남의 현황을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을 방문 하면서 성사되었다.

워크숍은 충발연 김용웅 원장의 '한국의 공간 변화와 지역개발정책', 충발연 이인희·오용준 책임연구원의 '동북아시아에 대응한 충남의 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진 뒤, QUT 학생들과 함께 대전·충남권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벌였다.

QUT 4학년에 재학중인 '크리스 루이스(Chris Lewis, 21)는 토론에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국의 연도별 지역발전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적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 중국-충청권-영남권 교역의 동서핵심축 견인해야 IC 인접 시·군의 자원 잠재력 조기 발굴 등 필요

-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 심포지엄서 제기

지난 5월 28일 개통한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서해안 시대 새로운 개발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 중국-영남권 교역의 동-서간 성장동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육동일)과 공동으로 7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광



역시 김홍갑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대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전·충남 발전 전략과 재발전"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두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대전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목원대학교 김원배 교수는 "두 고속도로 및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간 총6,474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진-상주간 고속도로는 대중국 교역량을 촉진시키고 충청권과 영남권을 잇는 소통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대전권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아산만권의 산업단지, 서해안물류거점으로 급부상한 당진·평택항,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한 청주공항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고속도로 인접 지역의 핵심 관광 명소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발전연구원 강영주 연구위원 역시 "서해안, 호남, 경부, 중부내륙, 청원-상주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돼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되어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진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중부 및 동·남부지역 대중국물류의 수출입 거점지로 육성해야 함은 물론, 영남권과 강원·충북 등에서 들어오는 교역량을 처리할 수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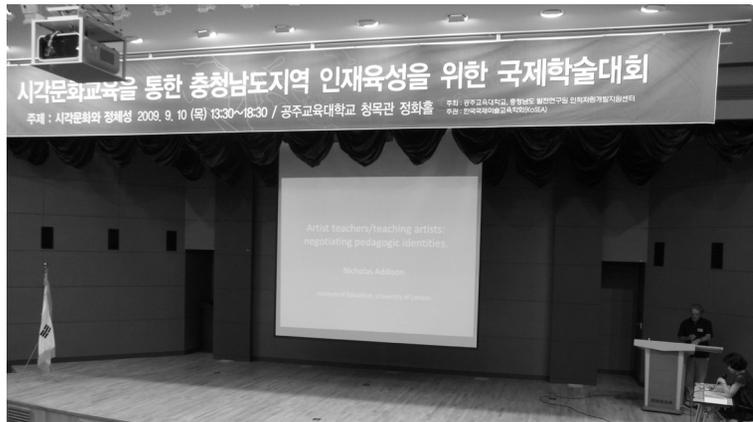
간 물류기지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충청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지역 내 동질감 증대를 위한 각종 교류행사, 지역농산물의 권역 내 소비를 위한 지산지소 운동, 관광자원의 교차이용, 축제 등의 공동개최, 해외마케팅의 공동추진 등 인적·문화적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향후 발전 과제와 전망을 제시했다.

공주대학교 정환영 교수는 "당진-대전,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충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두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잠재력 조기 발굴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국가 및 지역의 핵심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발휘 ▲개별적·지역적 개발보다는 광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추진 ▲고속도로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 사업의 고도화·소프트화 노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남대학교 정순오 교수의 진행으로 남서울대학교 김항배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 대전광역시 이중환 정책기획관, 충청남도 안병량 균형발전담당관, 서천군 이덕구 정책기획실장, 당진군 손인옥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하여 두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충청남도 예술분야(시각문화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총장 전우수)와 공동주최로 9월 10일(목)에 이 대학 청목관 정화홀에서 국내외 시각문화교육분야의 전문가, 공주교육대학교 교직원 및 미술교육과 재학생, 충청남도 지역 초·중등학교 미술교사,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예술분야(시각문화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시각문화 전공 미술교육학의 세계적 석학인(미국 Brent Wilson 교수, 미국 Christine Ballengee Morris 교수, 영국 Nicholas Addison 교수)들을 초빙하여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선도적이며 창의적인 미술교육 인재육성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9년도 충청남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선정·추진 및 도·시·군 담당관 설명회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 네트워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 충청남도 대응자금 1억 1천만원 등 총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5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충청남도는 전국 16개 시·도가 경합한 가운데 6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경북)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형 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 추진모델 구축사업」이 우수성을 인정 받아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에는 평생학습 기반구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평생학습 운영에 참여하는 평생교육사 및 전담공무원·평생학습 도우미 양성과정 운영, 시·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생학습 지식·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평생학습 계좌제」와 연계될 수 있는 충남도 평생학습 D/B구축사업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9월 9일(수)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 시·군의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불러 전체사업에 대한 설명을 갖고 향후 사업수행에의 협조를 다짐하였다.

2009년도 제1회 「Job아라! 포럼」 (산·학·관 HR전문가 포럼)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8월 14일(금)에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관계관, 「Job아라! 포럼」공동대표(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정영화 남서울대학교 취업정보센터 소장),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신호철 소장), 충청투데이(이의형 부장), 충청남도 내 8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대학(교) 취업담당자, 충청남도내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회 「Job아라! 포럼」(산·학·관 HR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Job아라! 포럼」행사에서는 충청투데이 취재부(이의형 부장)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의 홍보전략"을 발표하였고 크루셜텍(주), (주)에나인더스트리, (주)우리미디어, (주)부방테크론, SKC Haas 디스플레이 필름(유), (주)재능교육, 비스티온IK, 태산엘시디(주) 8개 기업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충청남도 관계관 및 기업인사담당자, 대학(교) 취업담당자들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며 충남지역 대학과 기업의 구직·구인간 mismatch 해결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Job아라! 포럼」은 도내 전 대학과 지역기업체가 참여하여 충청남도 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녹색성장 인적자원개발 세미나 개최



충남의 녹색성장정책을 전국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재양성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최병학)는 7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 후원으로 최병학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이영훈 충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철모 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충청남도 및 16개 시·군 녹색성장관련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녹색성장 인재양성 추진전략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충남의 녹색성장 인재양성 기본계획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 서철모 지역녹색성장과장은 기조연설에서 "충남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정부가 계획한 자전거 교통 분담지원, 공공청사·시설 및 민간건물의 저비용·고효율 에너지 시설 도입 시 인센티브 제공,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 주요 선도 사업과 연계한

지역별 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녹색성장 역할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직업개발원 황규희 소장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융합녹색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주력하면서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체계 및 구체화 전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양성 실용성 제고를 위해 산업체 융합인력 양성 참여 지원, 정부 및 지방출연(연)과 해외 우수 인재를 통한 교수요원 확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시켜야 한다"며 "신성장동력산업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책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언급되었듯이 2013년까지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107.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인력수요 측면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총152.9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면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지역인 충남의 특성을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확대에 따른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녹색일자리, 핵심 녹색기술 개발인력 및 환경컨설팅 전문인력 등을 중점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의 체계적인 녹색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수요에 부합한 필요 인력의 최적 공급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충남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녹색파트너십 구축 등을 고려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 실무협의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지난 7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갈등관리 및 금강살리기 관계관,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및 충남포럼, 4대 권역별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하반기 운영계획 및 「갈등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의 예방·중재·조정 필요성과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으며, 道 차원에서의 갈등관리 예산확보 및 조례 제정을 포함, 강력한 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 道, 시·군 갈등관리 담당자의 포럼의 중요성 인식 및 협조 요청, 금강살리기 사업 관련 포럼의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포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 통일성 있게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원전 안전성”과 “주민수용성”간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위한 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 센터 공식방문 및 워크숍 참여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과 이준건 갈등중재위원장 등은 지난 7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환경감시기구 워크숍」에 참석하여, 각각 주제강연 실시 및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병학 박사는 "지역의 갈등사례와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그동안 충남에서 발생한 갈등과 해결사례, 충남포럼의 운영사례, 경주 방폐장 유치사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갈등의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원전시설의 이해와 발전적 접근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주시의 주요산업인 원자력의 현안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충남포럼과 민간환경감시센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재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입지갈등 관련 좌담회 개최

충남포럼은 지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암면사무소에서 충남 포럼 임원 및 회원 등 전문가, 道 관계관, 아산시 관계관, 예산군 관계관, 사업자 대표 및 관계자, 시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갈등문제와 관련한 제1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아산시와 예산군 간 잠복된 갈등문제를 본 포럼 주최의 좌담회 개최를 통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소통기회를 마련함에 따라 갈등 완화의 길을 모색하고, 특히 아산시와 예산군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좌담회를 통하여 충남포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시·군간 갈등관련 현장갈등예방사업으로서 포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현장의 특성과 제약조건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각 시·군의 주민대표 및 의회의원들의 참여를 전제로 할 때, 아산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충남포럼에서는 현장지향적 갈등예방관리 역량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 관련 자문회의 개최



충남포럼은 지난 9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조례제정 및 갈등조정사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문회의에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한국행정학회 위기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전문가, 충남포럼 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 관리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면밀한 분석과 법령제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된 충청남도의 조례제정 방향 및 갈등조정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갈등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상생협력·갈등관리 충남포럼의 운영지원 활성화 및 권역별 포럼 및 시·군 단위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갈등관리 및 조정의 전문적,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전문자격 도입은 향후 전문화, 체계화된 갈등관리 및 조정영역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디자인 교육을 통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는 지난 2009년 2월 23일에 센터를 개소한 이래로 충청도내 16개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가 공공디자인의 중심점 모색을 위해 너도나도 뛰어 들고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공공디자인을 접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교육의 부재와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기피하게 되는 대상이며,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8월 27일에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센터장 이충훈) 주최로 16개 시·군 공공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디자인 모범지역 답사에서는 전주한옥마을과 진안군 백운면을 방문, 충청도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한 공공디자인 체험 및 진행 과정등을 알아 살펴보았고,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일선에서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관심과 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전환할 수 있었다.

